

한국전쟁중 2개면 창간...통폐합 굴곡 넘어 지역민 눈과 귀로

광주일보 변천사

1952. 2. 10 전남일보 창간	1954. 3 3·1절 마라톤 창설 1956. 6 호남예술제 개최	1958. 5 지방지 첫 4면 발행 1959. 1 연중우유 발행	1962. 12 금남로 1가 사옥 이전 1963. 11 취재전용비행기 도입	1965. 8 일본 동경에 지사 1969. 7 지방지 첫 컬러신문	1971. 4 전일방송 개국 1972. 1 일본 오사카에 지사	1980. 5 5·18로 임시 발행중단 1980. 11 전남일보·전남매일 통합 '광주일보'로 재창간	1984. 10 '월간 예향' 창간 1988. 7 초고속 컬러윤전기 도입	1990. 4 남도고속 건립기금 운동 1992. 4 4대국에 특파원 파견	1994. 5 무등기 야구대회 개최 1996. 6 인터넷 기사 서비스	1999. 4 전면 가로쓰기 제작	2002. 2 월간 예향 폐간 2004. 5 함평다이너스CC 설립	2004. 10 금남로 2가 사옥 이전 2013. 4 월간 예향 복간
------------------------	---	--	--	---	---	---	---	---	---	-----------------------	---	---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 직원들이 지난 1969년 공무국에서 신문 인쇄에 들어가기 전 문선(원고 내용대로 활자를 골라 뽑는 일) 작업을 하고 있다. (왼쪽)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발송부 직원들이 지난 1966년 제작된 신문을 배송 차량에 싣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950년대

지방지 최초 4개면 발행
호남예술제·마라톤 대회 개최
어려운 이웃·이재민 돕기 앞장

지방지 2면호를 맞은 광주일보의 발걸음은 그 자체가 광주·전남의 역사였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는 전신였던 1952년 2월11일 창간됐다. 이후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추진한 1도(道) 1사(인론사) 정책에 따라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이 통합. 그 해 12월1일 광주일보로 제호를 바꿔 현재에 이르렀다. 광주일보는 5·18 민주항쟁 여파로 1980년 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10일간 일시 중단된 것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신문을 발행했다.

각종 대회를 열고, 어려운 이웃과 이재민 돕기에도 앞장섰다.

◇1960~1970년대 시련과 역동의 시기=1960년대 초반은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16 쿠데타 등으로 시국이 어수선했다. 옛 전남일보는 군부대의 부정선거 실상과 투표장 분위기를 사실 그대로 전하는 기사를 냈다.

또 광주·전남에서 진행된 4·19 시위를 신속히 보도, 시민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도 자처했다. 1965년 6월3일자 신문은 '청구권 소멸이란 무슨 말인가'라는 제목의 사설로 굴곡적인 대일 외교 협상을 비판했다.

혼란했던 시국과는 달리 사세는 상승장구했다. 1962년 12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금남로시대'를 열었다. 날로 늘어나는 부수 확장에 따라 옛 전남일보는 1968년 10월9일 기존의 전남북 2도지(道紙)에서 전국지(全國紙)로 등록했다. 옛 전남일보는 전국지 등록에 앞서 신청 고속윤전기를 도입하고 부속시설도 자동화하는 등 시설 개선과 함께 지면 채신도 단행했다.

1963년 11월에는 취재전용 비행기 '무등산호'가 도입됐다. 무등산호 도입으로 보도 기능이 한층 강화됐고, 사건 현장의 공중 취재는 물론 각종 기획기사 취재에도 활용됐다.

이보다 앞서 밤시간대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총장로의 한 건물 5층 옥상에 전광뉴스판을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6년에는 월남전의 생생한 취재를 위해 1개월간 기사를 특파하기도 했다.

발전용 거듭한 옛 전남일보는 1969년 7월16일 지방지 최초로 컬러 신문 시대를 열었다. 세계 굴지의 윤전기 제작사인 일본의 이케카이 제작소의 '다색 고속도 윤전기'를 도입한 것이다. 이 시기 옛 전남일보는 종합매회컴퓨터를 구축, 언론 기업으로서 터전을 다졌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창간된 '주간 소년'에 이어 1971년 '전일방송국'을 개국, 신문과 라디오로 입체적인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TV국 개국을 목표로 한 340석 규모의 공개홀도 개관했지만 TV국 개국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5·18민주항쟁과 광주일보 창간(1980년대)=광주민주항쟁이 날로 격화되면서 1980년 5월 21일부터 6월1일까지 10일간 부득이하게 신문 발행을 멈췄다. 5월27일 전남도청 진압 후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계엄 선포에 따라 보도 검열이 진행됐고, 공정 보도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일 다시 발행한 신문은 1면에 "애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필설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참극을 참고 견디신 애독자 여러분 앞에 보낼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로 시작한 '속간의 말씀'을 담았다. 그 아래에는 "광주사태 희생자 명복을 빕니다"라는 사인 일동 명의의 7단 광고를 실어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이후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은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80년 11월29일 문을 닫는다. 두 신문은 통합돼 제호를 '광주일보'로 하고 12월1일 창간호를 냈다. 광주일보 창간호 1면에는 김종태 발행인의 창

간사가 상단에 통박으로 실렸다. 이후 1987년까지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의 유일한 지역신문으로 지역민을 대변해왔다.

◇전일방송 10년=1971년 4월24일 정오를 기해 첫 전파를 뒀다. 빠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으로 매 시간마다 편성된 전일방송의 뉴스는 타 방송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취취자들의 어려움과 고발을 현장에서 접수·처리하는 이동 방송차 운행 등 지상 방송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특히 야구 중계방송, 각종 프로그램의 공개방송, 광복 20년 등의 인기드라마는 광고영업 또한 지역 내 최고를 기록했다. 전일방송은 그러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정책으로 첫 전파를 탄 지 3507일 만인 1980년 12월1일 0시를 기해 KBS로 통합되는 비운을 맞았다.

◇1987년~현재=1987년 발표된 6·29선언으로 언론의 자유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보장되면서 전국적으로 언론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언론매체의 폭발적인 증가는 소위 사이비기자와 사이비 언론 문제를 야기시켰다. 언론의 홍수시대에 IMF, 신산업의 쇠락으로 광주일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이때부터였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1996년 6월 인터넷 광주일보(홈페이지) 서비스가 시작됐고 1994년 4월에는 전면 가로쓰기로 신문이 제작됐다. 문화예술 매거진 월간 '예향'은 지난 1984년 10월 창간했다가 2002년 2월(통권 209권) 발간을 멈췄다가 2013년 4월 복간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960~1970년

전국지로 등록·전일방송 개국
총장로 전광판 뉴스·월남전 특파원 파견
취재비행기 도입·지방지 첫 컬러 신문

1980년대

5·18 아픔 동참 10일간 발행 중단
언론 통폐합... '광주일보'로 재창간

1990년~ 현재

전면 가로쓰기·인터넷 서비스 시작
문화매거진 월간 '예향' 10년만에 복간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레스토랑 카페용, 산수오거리에서 20분, 광주호에서 5분거리 영 업 질 됨
대지(1054㎡(319)), 건물473㎡(143), 은행 2억3천 교환도가능 5억7천
- 금남로 4가 병합·사옥 등 적합 5층건물
대지648㎡(196), 건물3410㎡(1032), 감정 23억 7800만원 매도 21억7천
- 영암군 월출산 관광지시설지구 대지 1026㎡(310) 건물 2086㎡(630)
민박·식당·매점 등의 시설 은행 8억5천 매도가격은 협의함, 전월료임
- 금남로4가 대로변 대지 317㎡(97) 건물 1235㎡(363) 은행 4억 3천
임대 9년에 월 460에 임대 중 공실 있음 14억
- 대인동 사옥 등 적합건물 대지 780㎡(236) 건물 1993㎡(603)
감정가 24억 7천 매도 20억 6천건물임
- 대인동 7층건물 대지 332㎡(100) 건물 1340㎡(423)
은행 4억 주택가주거용 임대대상에 적합 9억 5천
- 신안동 모텔 대지 364㎡(110) 건물 885㎡(268)
객실 28실 은행 7억 교환도 가능한 매도 9억 5천

투자·매도·교환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물 736㎡(228)
상가와 인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천 수익 8억7천
- 동명동 조선대 부근 사설 좋은 교차로 대지(236㎡(71)) 건물(732㎡(221))
60실 공실없음 은행 3억 4천 월 1200만원 수입 안정적임 노후생활적합 8억 3천
- 안동동 1층 주거지 1317㎡(398) 대지대·빌라 적합 은행 2억 7천 매도 6억 2천
- 광장·청교적합 담양군 청평면 청평시장에서 7분거리 국도변
3426㎡(1036) 은행 1억 5천 매도 3억 5천
- 나주시 중앙동 대지 331㎡(100), 건물 975㎡(234) 주인이 거주하며
보증금 2억 2천, 월 590, 은행 6억, 매도 13억 5천
- 광산구 신촌동 1층 주거지 3491㎡(1056) 소형AAPT적합 평당 150만원
- 광장·청교적합 나주시 다도면 학신도시 인근 아산 13968㎡(4225)
은행 3억 작은물건과 교환가능 5억
- 편성·별장 등 적합 영광군 박수해안도로 1320㎡(399)
은행 2억 2500만원, 매도 4억 8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3억8천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횡도 주택 3동
교동편리, 매7억
- ▶ 나주시 봉황면 죽자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 75㎡,
점포 26㎡, 매2억4천

농지/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변, 매12억
-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전 배 과수원 6,089㎡ 생산관리
지역 투자유망 매7억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매3억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신기리 전 2,820㎡ 2차선도로변
광주시 대촌동경계 매1억7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원
-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3,871㎡ 주택,
청교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
- ▶ 나주시 세지면 송채리 담7,610㎡ 2차선 국도변
도로변, 투자유망매1억5천만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1,384,140㎡ (대지,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원
- ▶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24,884㎡ 매4억8천만
- ▶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 91,446㎡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전(일부대지) 배 과수원4,914㎡
4차선 국도변, 자연녹지, 판매적합 투자 유망 매12억5천만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51
이준상 ☎ 010 9510 1150

정남진 별장

꼭, 별장이 필요하신 분은!!!

접근성, 주변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일 원목을 활용한
건축물로 완벽한 보안 시스템에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39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독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에 바다낚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명소의 정남진 별장을 선택하십시오!

토지매매

주소 : 서구 쌍촌동 광송간 대로 변
상업지역
면적 : 1,515㎡
매가 : 53억 (3.3㎡당) 1200만원

병원·상가 및 사옥 부지 최적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법원경매

서구 용두동 화순군 이양면
임야47,702㎡ 갈나무1,100주
수확가능,도로접,갈나무포함
㎡당 1만4천원 감정이 3억3천2백
최저가 2억3천2백

전남 담양군 금성면 전원주택
대지289㎡ 마을형성,주변환경
양호(금성산성,담양온천)
담양호 가시길, 전원주택추천
최저가 2천만원

서구 금호동 거북빌딩7층
대지181㎡ 건물295㎡ 전망최고
패밀리레스토랑 및 외식업체추천
감정이 6억5천5백만원
최저가 2억3천5백만원

부동산 재테크 전문

서구 마북동 주유소 광주
아울렛인근 대지1,132㎡
건물278㎡,교통충음,물류회사
고물상, 사옥추천
감정이 10억원 최저가 7억원

광산구 하남공단 공장
대지1,734㎡ 건물 2,636㎡
포장도로접, 임대가능,
시세차익, NPL가능
감정이 14억5천 최저가 6억5천

다외옥션 김흥희부장
010-7147-4989

(주)전국부동산 경매연구소

법인등록번호 200111-018150
법민사업자번호 650-81-00051

초저금리(예금/대출) 시대에
재테크의 지름길은
"부동산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안정된 재산 증식을
원하시는 분
경매실무를 배우실 분(무료)
(정년, 명예퇴직 하신 분 환영)
부동산 관련 고충, 행정처리
(무료상담)
취급물건
투자가치있는 전국부동산경매물건

사업의 종류

부동산 중개업(매매/임대)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 알선업
경·공매 부동산 명도 용역업
주택 건설업

보유자격증

공인중개사,경매사, 행정사
토목기사

방문 및 상담

062-449-2552
010-3441-1308 (주/야)

수익금 일부는
생명사랑운동본부에 후원합니다.

상업지역 급매

소액투자 최적합지

호텔
모텔
무인텔

즉시 건축 가능
건축허가 완료!

면적
330㎡ / 660㎡ / 1,320㎡
3.3㎡당 180만원

주인직
010-5450-1172